

● 진흥컬럼

생활화 되는 팩스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이란혁명의 숨은 공로자는 카세트테이프 레코더

뉴미디어,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 등장한 통신수단은 전쟁터에서의 숨은 공로자로서 크게 공을 세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워털루의 전쟁에서는 나폴레옹군의 패전을 재빨리 런던에 알려준 것은 잘 훈련된 통신용 비둘기였다. 그 덕에 로스차일드 일가는 재빨리 하락할대로 하락한 주식이나 증권을 몽땅 사모아 일약 거부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또 1905년의 노일전쟁에서는 멀리 발틱해에서 지구를 반바퀴 이상이나 돌아 파견된 노서아의 영해군 발틱함대의 행로방향을 재빨리 탐지해내서 일본함대사령부에 무선으로 보내줌으로서 일본함대에게 일대승리를 안겨준 이야기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영국해군(1900년)에 이어 1903년 일본해군에 의해 해군용통

신수단으로 채용된 무선통신을 당시로서는 최첨단 통신기술이었다(1899년 도버해협 횡단무선통신 성공, 1901년 대서양횡산통신성공).

그런가 하면 1979년 2월에 일어난 이란혁명에서의 숨은 공로자는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인 즉 이렇다. 즉 파리에 망명중에 있던 호메이니옹은 매일아침 카세트테이프 레코더 앞에서 이란에 있는 혁명동지들에게 보내는 한시간에 걸친 메시지를 녹음시킨다. 한시간짜리의 이 녹음테이프는 2곽(Case)을 빼버리면 직경 5cm, 두께 약 6mm의 얇은 판이 되고 가슴 포켓에 넣는 수첩속에 구멍을 파서 손쉽게 감출 수가 있다. 녹음된 이 테이프는 특별히 훈련된 정보원에 의해서 파리의 드골 공항에서 이란의 테헤란공항으로 운반이 된다.

테헤란에 도착한 이 정보원은 곧 10여명의 동지가 모여 있는 집합소에 안내된다. 거기서 미리 대기중에 있던 카세트테이프에 의해 호메이니옹의 메시지는 한시간후에는 10여개로 복제가 되서 이란 각지로 직송된다. 그 10개의 카세트테이프는 다시 10여개의 제2의 집합장소에서 100여개로 복제가 되며 전국에 퍼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날 중으로 호메이니의 메시지는 전국의 여러 수만명의 혁명동지에게 전송이 된다.

혁명직전까지도 팔레비왕의 비밀경찰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고, 또 설사 알았다해도 이미 수십만개, 수백만개나 보급된 모든 카세트테이프를 감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천안문에서도 걸프전쟁에서도 활약한 팩스

또 1989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전차까지 출동된 천안문사건의 피의 탄압으로 붕괴가 되기는 했지만 이 영향은 전세계에 미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이란의 팔레비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제가 심했지만 단파 라디오와 팩시

밀리통신마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이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선 학생들을 지원했던 미국이나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유중국인들은 팩시밀리(Facsimile, Fax라 약해서 쓰기도 함. 모사전송장치, 쉽게 말해 전화회선을 이용한 전자우편기, 또는 원격복사기)를 이용해서 갖가지의 해외정보 및 중국내 정보를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나선 중국학생들에게 보내줌으로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또 하나 팩시밀리 이용은 걸프전쟁에서의 활약이었다. 즉 걸프전쟁에서의 다국적군의 정확한 폭격의 뒤에는 팩시밀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91년 3월 4일의 외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내의 반란조직이 공격목표의 정확한 정보와 지도를 위성전화회선을 써서 시시각각으로 다국적군에 건네주었으며, 특히 이동이 잦은 스커드미사일의 이동발사대파괴에는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한다.

또 미국의 어느 정보장교는 종전후 「쿠웨이트의 반란조직 지도자와는 언제라도 연락을 할 수가 있었다. 공격목표에 관한 정보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사실 그 걸프전쟁은 하이텍(첨단기술)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고도의 첩보(Intelligent) 전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첩보전에서 통신위성과 팩시밀리가 큰 공을 세운 셈이었다.

지도에 화살표까지 달린 스커드미사일의 이동대 위치

사실 걸프전쟁에서는 이런 반란 세력외에 쿠웨이트 국내에 잔유한 많은 고관들이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팩시로 비밀통신을 보내왔던 것이다. 예컨대 「어제 불간유전이 폭발되어 검은 연기가 2km 높이로나 솟아올라갔다(2월15일)」라 느니, 「반란조직이 이라크군 전차대간부를 살해(2월19일)」 등등 생생한 정보와 함께 「바

다는 기부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폭 약 반마일만 안전한 장소가 있다」와 함께 그 해안지역의 지도까지도 보내오는 일(2월20일)이 있는가 하면, 전차의 집결상황이나 장소에 관한 군사정보들이 속속 다국적군에 전송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세세한 군사정보가 다국적군쪽에 그대로 매일같이 전송되는 이상 이라크군의 소멸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팩시밀리의 특징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은 지도에서였다. 스커드 미사일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의 자세한 그림이라던가, 이라크 군사령부가 있는 장소들을 화살표로 표시한 지도는 큰 도움이 되었다. 더구나 중요했던 것은 스커드 미사일의 이동발사대의 새 위치로서, 첩보위성의 분석으로는 미처 시간이 모자라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지도가 달린 팩시밀리정보는 크나큰 도움이 되어 전쟁후 미군으로부터 크게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의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팩시밀리 통신

또 하나의 팩시밀리의 의외적인 이용방법의 하나는 TV국의 중계방송 현장에서의 사용법이라 한다. 신문기자가 송고용으로 휴대용의 팩시밀리를 갖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TV 중계팀이 무엇때문에 팩시밀리를 갖고 다닐까?

이야기인즉 이렇다. 즉 어떤 사건이나 화재가 일어날 때 각 TV사의 TV 중계팀은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게 된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범위내의 일이라면 쉽게 육안으로 알 수가 있지만 전체의 상황은 파악하기가 힘든게 있다. 그 전체적 상황은 각방면으로부터 정보가 모여드는 본사쪽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은 본사로 부터의 팩시밀리 통신을 통해 입수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전체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밸런스 맞게 현장의 실황을 카메라

로 잡아야만 격에 맞는 중계방송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그 팩시밀리는 점점 더 경박단소화하여 휴대하기가 쉽게 되어가고 있다.

팩스가 달린 객실, 변모하는 호텔

이런 이용범외에 최근 들어서는 팩시밀리는 호텔업계쪽에도 크게 진출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호텔도 점차 정보기지,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더해가고 있다. 예컨대 호텔안에 비즈니스 센터란 것이 만들어져, 워드프로세서(World Processor, 문서정보처리), PC(개인 컴퓨터, Personal Computer) 팩시밀리 등등의 OA(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 기기를 구비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 객실에까지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있는 호텔은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최근 일본의 동경 미나토모에 있는 호텔 오타니는 이미 2,054실의 객실 중 100객실에 팩시밀리를 장비해 놓고 있고, 1994년까지는 전객실의 모든 방에 팩시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호텔 오타니의 경우 외국인 숙박객은 50%도 넘는다고 한다. 그런만큼, 옛날에는 텔렉스(Telex)에 의한 메시지(Message)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팩시밀리에 의한 수신이 늘어나서 많을 때는 하루에도 4,000매를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팩시밀리의 수신이 늘었다는 것은 팩시밀리의 보급도 보급이거니와 건반문화에 익숙한 서양사람마저도 문자밖에는 송수신할 수 없는 텔렉스 대신 도형이나 핸드라이팅(전화)의 문서마저도 보낼 수 있는 팩시밀리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 최근들어 랩탑(Lap Tap) PC라던가 노트북(Note Book) PC 등 경박단소형의 PC가 출현하여 휴대하기가 쉽다고 해서 여행때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런 경우 문제는 프린터이다. 무거운 프린터까지 갖고 다

니려면 큰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휴대용 PC로 작성한 문서를 프린트 할 수가 있을까?

팩스만 객실에 있다면 PC통신망의 팩시밀리 서비스도 프린터 없이도 직접프린트 서비스가 가능

한가지 방법은 PC통신망을 쓰는 방법이다. 즉 PC통신망의 팩시밀리 서비스를 쓰면 된다. 작성한 문서를 PC통신망의 팩시밀리 서비스로 보내고, 그것을 다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의 팩시밀리쪽으로 송신하게 하면 프린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손쉽게 프린트가 가능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팩시밀리를 수신한 호텔측의 대책이다. 호텔측으로서는 수신한 팩시밀리 문서를 될수록 빨리 숙박객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서비스이다.

그러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호텔 오타니 처럼 하루에 4,000매나 팩시밀리 문서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일일이 숙박객에게 제때에 전달하기란 여간 힘들지가 않다.

그래서 호텔 오타니는 현재 200억엔이나 거액을 들여 객실을 개량중에 있다. 즉, 3실을 2실로 개조하기도 하고, 2실을 합쳐 큰 실 하나로 만드는 등 객실면적을 넓혀서 객실의 격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2,054실의 방을 결국적으로는 1,600실로 갯수를 줄인다고 한다. 그대신 곧 객실은 모두 정보기지화시켜 반드시 팩시밀리를 구비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손님은 언제나 휴대용의 PC를 전화콘센트에 꽂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PC통신망의 팩시밀리서비스를 통해 자기방에 있는 팩시밀리에 송신케함으로써 프린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나 자유자재로 문서를 프린트 아웃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팩시밀리의 유일한 약점은 기밀성의 유지문제이다. 수신될 팩시밀리문서중에는 고도

로 비밀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문서가 호텔의 공용팩시밀리로 수신된다면 아무리 호텔측이 신경을 써서 대형봉투에 넣어서 전송해준다고 해도 봉투에 넣기 직전에는 기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팩스가 각 객실마다 있다면 손님은 안심해서 그 기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목욕탕과 함께 Fax도 달린 아파트도 앞으로는 출현

고급호텔의 Fax설치는 앞으로도 객실에 목욕탕이 붙는 것 만큼이나 당연한 것이 되어갈

듯하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Fax가 달린 아파트도 출현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호텔이나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그 유행이 넘어갈듯 하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Fax의 구비가 사람의 거주나 활동의 필요조건의 하나가 될 듯하다.

이런 세계적인 정보화 경향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호텔계, 아파트건축계도 Fax화에 힘쓸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92년도 전자산업 전망조사

최근 우리전자업계의 환경은 대내적으로 노사분규, 고임금화 등으로 국제경력의 현저한 악화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 기술이전기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더욱 거세어져 어려운 국면에 접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지난 해에도 업계의 애로점 등을 조사하여 업계의 공통 애로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기업의 대응력 재고를 위해 마력이나마 애써온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업계의 기술인력 확보책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자관련학과 정원을 대폭 증원시키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본회에서는 우리 전자산업의 '92년 전망을 조사하여 업계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및 '92년도 본회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리라 사료되오나 꼭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로 종합정리하여 정부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귀사가 제출하신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타목적으로는 이용치 않을 것이며 개별 기업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 조사서는 11월 16일 (토)까지 본회 기획과(Tel : 553-0941/7, 557-2417, Fax : 555-6195, 563-7339)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1. 11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구 자 학